

사이언스, 셀, 네이처가 주목하는 「여성생명과학상」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생물학의 해, 신록이 푸르른 5월에 우리 나라 여성생명과학자들의 축제인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하버드생 금나나씨(25)가 특별상을 받는다고 해서 시상식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화제가 됐다.

장호희·하은미·김정화 박사, 여성생명과학상 수상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여성생명과학상은 해마다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눈에 띈 것은 금나나 씨뿐 아니라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수상하는 3명의 젊은 여성과학자였다. 젊은 여성과학자 양성을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보통 박사과정이나 박사후연구원들이 받아왔다. 생명과학분야에서는 많이 활약한 분들이었겠지만 언론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신진’ 연구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올해 수상자 면면을 보자. 먼저 경상대 장호희 박사(30). 그는 2004년 박사과정 2년차에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퍼록시레독

신 단백질의 두 가지 기능 조절에 의한 생체방어기전 연구’ 논문을 셀지에 게재했다. 지방대에서, 그것도 박사과정생이 세계적인 생물학저널 셀에 제1저자로 등재돼 엄청난 조명을 받았다. 많은 언론들이 앞 다투어 이 소식을 전하며 ‘세계 생명과학계를 놀라게 한 시골 처녀’라고 불렀다. 모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었던 이 표현은 ‘시골 처녀’라는 어감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화여대에서 다시 ‘사건’이 일어났다. 생명과학부 박사과정의 한 여학생이 이번에는 사이언스에 논문을 실었다. 물론 제1저자였다. 장에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세균증식억제효소(듀옥스)’의 정체를 세계 최초로 밝힌 논문이었다. 주인공인 하은미 박사(29)는 지금 생체공생시스템 창의연구단에서 박사후과정을 밟고 있다.

마지막 수상자는 서울대 김정화 박사(34)다. 김 박사는 2005년 4월 ‘KAI1’ 암전이 억제 유전자의 전사 수준에서의 조절 메커니즘을 밝혀 네이처에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수모단백질이 KAI1의 발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밝혀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NCB)에 발표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 박사의 업적 또한 우수했지만, 지도교수인 백성희 박사(서울대 생명과학부)가 더 뜨는 바람에 아마도 언론의 조명을 덜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3명의 수상자들을 모아놓으니 신기하게도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다 모였다. 우리 나라 생명공학이, 또 여성과학자의 연구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박사 딴 뒤에 돈 걱정을 해요”

3명의 젊은 과학자들과 금나나 씨가 한자리에 앉았다. 덕성여대 문애리 교수는 “올해는 수상자 선정 기준이 미모였나 보다”라며 농담을 건넸다. 다들 실력만큼이나 미모도 뛰어났다. 생물학 분야에



로비에 모인 참석자와 청중들



왼쪽부터 유영숙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수상자인 장호희, 김정화, 이홍금, 하은미, 금나나, 클라우스 파스벤더 로열알코리아 사장

서 여성들의 활약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박사과정에서 그 만두는 여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장호희 박사는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반반 정도 되는데 박사학위를 받는 비율은 훨씬 낮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의 하은미 박사도 “여학생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박사를 포기하거나 박사학위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동의했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본교(이대) 출신의 대학원생은 드물다고 한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생활은 어떨까. 김정화 박사는 “대학원 과정에는 장학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별로 어려운 줄 몰랐는데 박사를 받은 후 오히려 돈 걱정을 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BK21 연구교수인 김 박사가 받는 연봉은 3천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박사과정일 때보다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교수’라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하다. 특히 BK21 연구교수로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박사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

장호희 박사와 하은미 박사는 외국으로 포닥을 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 연구경험을 하고 싶지만, 해외에 가기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하 박사의 경우 활성산소 연구는 이화여대가 세계의 선진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실에 가려면(경쟁 실험실에 갈 수는 없으니) 주제를 바꿔서 가야 한다. 장 박사는 해외로 포닥을 나갔다가 오히려 연구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20년 전 선배들은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요즘 후배들은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인생 고민을 시작하는 셈이다.

생명과학 분야의 최초 여성 소장, 이홍금

너무 젊은 과학자들만 띄웠나 보다. 여성생명과학상 진흥상 수



이홍금 박사가 수상후 강연을 하고 있다.

상자인 이홍금 박사는 지난 5월초 극지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세번째 여성기관장을 기록했다. 앞선 두 명이 나도선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최초의 여성기관장인 셈이다.

이홍금 박사는 해양미생물로부터 적조제어물질을 개발하여 국내외 17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이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산학 연구 네트워크의 거점을 형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2001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진흥정책수립, 과학기술 관련제도의 발전 및 개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과학기술관련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발전방안 수립에 기여해왔다.

여성과학자상 본상의 역대 수상자는 2002년 서울대학교 노정혜 교수, 2003년 서울대학교 김영중 교수, 2004년 울산대학교 나도선 교수, 2005년 서울여자대학교 이연희 교수, 2006년 고려대학교 백경희 교수 등이다.

개인적으로 금나나 씨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사실은 걱정이 좀 앞섰다.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은 학술단체인데 아직 학문적인 업적이 없는 학부생에게 상을 주는 것이 어색해보였기 때문이다. “미스코리아 당선자라는 화려함보다는 과학이라는 어려움을 택했다”는 수상자 선정 이유도 잘못 해석하면 과학을 폄하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그러나 금나나 씨 스스로 상금을 사회에 헌납하는 등 겸손한 모습을 보여 이러한 기우를 없애줬다. 올해 여성과학자상은 정말 유쾌한 축제였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